

# 패션

## 황실 예복에서 디자이너 브랜드까지

### 고대 일본의 의상

현존하는 기록에 의하면 4세기 이전에 일본의 남자들은 긴 천을 어깨에 걸쳐 몸을 감쌌으며 여자들은 가운데 목이 들어가는 구멍이 있는 한 장의 천을 입었다. 이러한 종류의 옷은 고대 그리스나 로마, 인도네시아 및 페루와 같은 나라에서도 발견되었다.

야마토 조정이 발전하던 4세기 무렵부터는 박음질한 옷을 입기 시작하였다. 남자와 여자는 모두 허리 아래까지 내려오는 끈고 꼭 끼는 소매가 있는 저고리를 입었다. 하의로 남자는 '하카마'라는 헐렁한 바지를 입었고 여자는 길고 주름이 잡힌 '모'라는 치마를 입었다.

아스카 시대(593-710)와 나라(710-794) 시대에 불교가 도입되고 중국 문화가 유행하면서 황실과 관련한 사람들의 옷은 중국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헤이안 시대(794-1185)의 황실의 옷은 3가지로 분류되었다. 특별한 의식을 위한 복장과 황실에서 격식을 차린 복장 그리고 그 외의 일반적인 복장이다. 격식을 차린 남자의 복장은 '소쿠타이'라고 한다. 여자의 의복은 여러 겹으로 이루어져 있다. '주니히토에'로 알려진 격식을 차린 옷은 12겹으로 되어있다.

가마쿠라 시대(1185-1333)와 무로마치(1336-1573) 시대에 조정의 관직에 있던 무사('사무라이') 계급은 공식적인 행사에서는 '소쿠타이'를 입었지만 일상복은 '가리기누'로 알려진 옷을 입었다. '사무라이' 계급의 여자들은 평소에는 '고소데'라는 명주실로 짠 옷을 입었으며 이 옷은 오늘날에 입는 공식적인 전통 여성 의복과 별 차이가 없다. 그러나 당시는 공식적인 행사의 경우에는 '우치카케'라는



**12히토에**  
12겹으로 겹쳐진 옷으로, 궁중 여성들의 정장이었다.  
(사진제공:AFLO)

긴 겹옷을 입었다.

에도 시대(1603-1867)에 남자 무사 계급은 '쇼군'을 섬길 때에는 '가미시모'라고 부르는 겹옷을 입었지만 일상적인 경우에는 남자와 여자 모두 '고소데'와 '하카마'를 입었다. 그리고 무사 계급의 남자가 옆에 칼을 차는 '오비'라고 하는 긴 천을 허리에 묶는 것이 관습이었다. 여자의 '오비'는 조금씩 넓어지고 화려해졌다. 에도 시대 초기 사람들은 아주 간단하게 옷을 입었고 공식적인 행사에서 여자는 '우치카케'를 입었다. 하지만, 평소에 입는 옷도 오늘날의 기모노에서 볼 수 있듯이 매력적으로 염색한 소재와 아름다운 무늬의 우아함을 표현하여 점차 더 멋있어졌다.



## 기모노에서 양복으로

메이지 시대(1868-1912)가 시작된 후 군인과 경찰, 우체부를 위해 서양식 제복이 도입되었다. 이것은 일본의 의복에 있어서 크나큰 변화를 가져오는 아주 강력한 자극제가 되었다. 메이지 시대 초기에도 일반적으로는 기모노를 입었다. 공식적인 행사에서 남자는 주로 '하오리'(전통적인 마고자)와 '하카마'를 입고 서양식 모자를 썼으며 일부 여성들은 일본식 복장과는 다르게 서양식 부츠를 신었다. 기모노와 부츠의 복합적인 일본, 서양식 스타일은 오늘날 대학 졸업식에 참석하는 젊은 여학생들 사이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쇼와 시대(1926-1989)가 시작된 후 남자의 옷은 전반적으로 서구화되었으며 직장인들의 기본적인 복장은 양복이 되었다. 일하는 여성들도 서양식 옷을 입기 시작하였으며 많은 여성들이 집에서 서양식 옷을 입기 시작하였다.

## 일본의 현대 패션의 변화

### The 1940s

제2 차 세계 대전이 끝나자 여성들은 전쟁 시에 작업을 위해 입었던 '몸빼'라는 헐렁한 판탈롱을 벗어버리고 치마를 입기 시작하였다. 당시 일본으로 들어온 대부분의 패션은 미국에서 온 것이었다. 1940년대 후반부터 1950년대까지 여성들은 소위 미국 스타일인 넓은 벨트가 있어서 허리가 잘록하고 아래단이 나풀거리는 긴 치마를 즐겨 입었다.

파리의 패션도 미국을 통해 일부 소개되었다. 1947년 크리스찬 디올이 파리 컬렉션에 데뷔하였는데 이듬해 디올의 새로운 스타일에 관한 방대한 정보가 미국을 통해 일본으로 들어왔다. 일본 여성들은 세계적으로 유행하는 이 '새로운 풍'에 대단한 관심을 쏟기 시작하였다.

### The 1950s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해외 여행이 여전히 힘들었던 시절 영화는 해외 패션의 주요 정보원이었다. 많은 외국 영화가 일본에 상영되면서 일본 사람들은 유럽과 미국의 패션 및 서양의 일상 생활을 관찰할 수 있게 되었다. 그로 인하여 수많은 유행이 생겨났다. 1950년대 영국 영화 '빨간 구두'가 상영되자 빨간색 구두가 젊은이들 사이에서 즉시 유행하였다. 오드리 헵번이 출연했던 '사브리나'가 1954년에 상영되었을 때 젊은 여자들은 기마바지와 '사브리나 구두'에 열광하였다.

1956년 아쿠타가와 상을 수상한 이시하라 신타로의 소설을 영화로 만든 '태양의 계절' (다이요노 기세쓰, 원작명도 동일함, 1955)가 상영된 후, 많은 일본인들이 '태양족'으로 알려진 영화 주인공의 패션을 흉내냈다. 여름에 남자들은 티셔츠에 알로하 셔츠를 입고 선글라스를 쓰기 시작했으며 여성들은 화려한 무늬의 짧은 바지를 입고 거리를 활보하였다.

### The 1960s

이 시기에 젊은이들은 논란의 여지가 없는 패션의 중계자였다. 1960년대는 값 비싼 오프 쿠튀르(고급 맞춤 의상)에서 일본에 소개된 값이 저렴한 기성복 패션 아이템 프레타포르테로, 정장에서 캐주얼로 변화한 시기였다.

1965년 봄 파리 컬렉션에서 소개된 미니스커트는 즉시 일본에 소개되었다. 대중 매체에서는 미니스커트가 일본 여성의 체격에 맞지 않다고 반대하였지만 1967년 '미니스커트 여왕'으로 알려졌던 영국 모델 트윙기가 방문한 후로 대유행을 하였다. 미니스커트는 먼저 젊은 여성들이 입기 시작하였고 더 나이가 많은 여성들도 입게 되면서 1974년 경까지 정착된 패션 아이템으로 정착되었다.

남성 패션은 1960년대 중반 이후로 큰 변화를 맞게 된다. 특히, '아이비 스타일'이 유행하였는데 이는 미국의 엘리트 '아이비리그'의 사립대 학생들의 패션을 동경하여 표현한

기모노  
(사진제공 : AFLO)



### 졸업식

대학 졸업식을 위해 예쁘게 차려 입은 여대생의 모습이다.  
(사진제공 : AFLO)



것이였다. 이 스타일은 미국 엘리트 계급의 전통적인 패션에서 시작되어 수차례 유행이 반복되었고 젊은 회사원에서부터 중년에 이르기까지 널리 확산되었다.

젊은이들 사이에서 유행한 패션과는 대조적으로 회사원들이 입는 양복은 보수적으로 검은 회색 톤이 많아서, 이로 인해 일본 회사원은 '도부네즈미' (시궁창에 쥐) 족이라고 비웃는 말로 불리게 되었다.

### The 1970s

1970년대 중반에 고베와 요코하마와 같은 항구 도시에서 발달한 패션은 '뉴토라'(새로운 전통)와 '하마토라'(요코하마 전통)라는 말로 불리게 되었다. 이 패션은 기본적으로 전통적인 남성용 미국 아이비 리그 패션을 여성 스타일로 디자인한 것이였다. 고베에서 시작된 '뉴토라' 스타일을 구별하기 위해 사용된 슬로건은 '온나 라시사'(여성스러움)와 '오토낫포쿠미에루'(어른처럼 보인다)였다. 전형적인 '뉴토라' 스타일은 평범한 셔츠 블라우스와 무릎을 가릴 정도의 길이 않은 치마를 입는 것이였다. 반면에 요코하마에서 시작한 '하마토라' 스타일은 '고도못포사'(아이스러움)로 구별할 수 있었으며 디자이너의 사인이 붙어있는 스웨트 셔츠나 아울렛에서 파는 옷은 폴로 셔츠처럼 접을 수 있는 것이 달린 것도 있었다.

1970년대 후반에는 '서퍼 패션'이 10대들 사이에서 유행하였으며 1950년대 미국 패션도 다시 유행하였다.

### The 1980s

1980년대는 소위 일본이 거품 경제로 접어들면서 '디자이너와 캐릭터 브랜드'를 의미하는 'DC 브랜드'가 유행하기 시작하였다. 이것은 마크가 있는 브랜드 옷이나 특정한 패션 디자이너의 옷을 확실히 분간할 수 있도록 하는 디자인 개념이다.

다카다 겐조, 미야케 잇세이, 야마모토 간사이와 같은 일본 디자이너들은 국제 패션계에서 활발하게 지속적인 활동을 하였으며 그들의 작품은 높은 평가를 받았다. 디자인 그룹 'Y's'의 야마모토 요지의 패션과 파리 컬렉션에 출품되어 주목을 받은 꼼데가르송 디자인 그룹의 가와쿠보 레이의 어두운 색깔과 기이한

스타일에 영향을 받아 일종의 컬트적 유행이 퍼지게 되었다. 디자인 그룹 '비기'의 기쿠치 다케오와 이나바 요시에의 패션과 '니콜' 그룹의 마쓰다 미쓰히로의 패션도 주목을 받았다.

1980년대 후반 여성 패션은 두 가지 흐름으로 나뉘었다. 하나는 자연스러운 신체의 선을 강조하는 '보디콘' 스타일이고 또 하나는 도쿄 시부야의 쇼핑가에서 옷을 고르는 고등학생과 대학생들 사이에 유행한 '시부카지'(시부야 캐주얼)로 알려진 스타일이었다. 이 당시 일본의 디스코텍에서 춤을 추던 많은 여성들이 '보디콘'을 입어 세간의 화제 거리가 되었다. '시부카지' 스타일의 기본적인 개념은 단순성과 내구성이었다.

이전에는 '시궁창 쥐'로 불렸던 짙은 회색 옷을 입던 회사원들 사이에서도 많은 젊은이들이 세련된 브랜드 옷을 입기 시작하였다. 오늘날에도 '평이'하고 '차분하다'라는 개념은 여전히 일본 '샐러리맨' 기본 복장의 특징이다. 한편, 비즈니스 사회에서 입을 수 있는 적합한 옷의 종류에 대해 생각의 변화가 일기 시작하였다. 예를 들어, 많은 회사들은 주말을 앞둔 금요일에는 격식 없는 복장을 입을 수 있도록 허락하였다.

### The 1990s

'버블 경제'의 붕괴에 이어서 1990년대의 다른 많은 것들처럼 패션도 미래에 대한 뚜렷한 전망이 없는 혼돈의 시기가 찾아왔다. 1990년대 후반에 일부 해설자들은 오리엔탈리즘과 로맨티시즘의 요소를 발견하였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1990년대 후반은 하나의 지배적인 경향이 없이 다양한 종류의 스타일이 공존하는 시기였다고 말할 수 있다.

1990년대의 가장 뚜렷한 특징은 패션에 민감한 여고생과 여중생들이 기존의 패션 경향을 이끄는 현상이 일었다. 예를 들면 거리에는 갈색으로 염색한 긴 머리에 피부를 까맣게 태우고 끝이 펄럭이는 미니스커트나 짧은 바지를 고 일부러 구두의 윗부분을 덮도록 만든 늘어난 루즈 삭스를 신은 젊은 여자들을 쉽게 볼 수 있었다.



### The 2000s

1990년대의 버블경제의 붕괴와 그 이후의 장기 경제 침체로 시작된 불황은 21세기에 접어들어 패션 분야에도 확산되었다. 패션은 줄곧 대량생산, 저가격 제품이 시장에 출시되어 왔지만, 새로운 트렌드는 고품질의 최신 스타일의 패션이다. '패스트 패션(fast fashion)'으로 알려진 일본의 유명 의류회사도 해외 시장에 진출하고 있다. 해외의 의류제조사는 '패스트 패션'이라는 컨셉을 만든 해외의 의류제조사도 일본의 대형 상업시설에 매장을 개설하여 일본시장에 진입하였다. 동시에 '패스트 패션'과는 반대 현상으로 고소득층을 타겟으로 하는 해외 유명 브랜드는 도쿄 긴자와 그 주변에 매장을 오픈하여 계속 일본시장을 확대하였다. 또, 2005년부터 시작된 '도쿄 걸즈 컬렉션'은 10대 후반부터 20대 전반의 여성을 대상으로 한 패션 쇼인데, 해마다 큰 인기를 모으고 있다. 인기 모델들이 무대에서 입는 세련된 의상들을 비싸지 않은 가격 범위에서 휴대폰 사이트를 통해 바로 구입할 수 있게 하는 새로운 시도도 선 보이고 있다.



#### 시부 카지

1980년대 말에는 '시부 카지'(시부야 캐주얼)라고 불리는 패션이 젊은 이들 사이에서 유행했다. (사진제공 : 교리쓰여자단기대학 컬러 & 디자인 연구실)

기모노를 입는다. 이 기모노의 매력적인 디자인은 지속적으로 번창해 가는 일본 전통 문화의 여러 면 가운데 좋은 예의 하나이다.



패션을 즐기는 젊은이  
(사진제공 : 일본패션협회)

## 일본 전통 의상의 미래

오늘날, 일본 사회에서 기모노는 쉽게 볼 수 없는 옷이 되었다. 젊었을 때부터 기모노를 입어온 몇몇 노인들과 특정한 전통 식당의 종업원 또는 일본 춤과 다도, 꽃꽂이와 같은 일본 전통 예술이나 관습을 가르치거나 배우는 사람들은 아직도 기모노를 입는다. 서양의 복장과 비교할 때 기모노는 입기가 까다로우며 육체적인 활동을 하기에 불편하다. 실용적이고 일상적인 의상으로서 거의 사라지게 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모노는 일본인의 삶의 뿌리이며 특별한 주요 행사에는 기모노를 입는다. 여성들이 기모노를 입는 행사에는 '하쓰모데'(신년에 처음으로 신사나 절을 방문하는 행사), 성인식, 대학 졸업식, 결혼식 그 외 중요한 행사나 공식적인 파티 등이 있다. 이 때 소녀와 미혼 여성은 긴 소매의 '후리소데'라는



#### 루즈 속스

1990년대에는 '루즈 속스'라는 헐렁하게 신는 흰색 긴 양말이 여고생 사이에서 유행했다. (사진제공 : 교리쓰여자단기대학 컬러 & 디자인 연구실)